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6월 9일 (제1257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어느 것이 행복이나?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5:17).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이 말씀이 진리 중의 진리임을 깨닫는다.

나와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다. 그가 잠시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 거할 때였다. 저녁 식사 후 둘이 담소를 나누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이 목사, 여자는 그냥 여자면 돼.”

그의 말에는 깊은 뜻이 숨어있었다. 그의 말은 행복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과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 역시 머리에 하얀 서릿발이 내린 나이인지라 나를 ‘행로(行路)법칙’을 깨달은 것이리라.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행복이 무엇일까? 오래 살아보니 행복은 엄청나게 큰 덩어리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더라. 평범한 일상에 아주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더라.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이해하고 사는 것에 있더라. 조금 부족하면 ‘당신 먼저! 아니야 당신 먼저!’ 하는 것이더라. 아프면 ‘힘내세요.’ 하며 손잡아주는 것이더라.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내게 상담을 왔다. 그의 남편은 몇 해 동안 병상에 누워 있고, 오랜 기간 간병을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 집사님이 하도 보기에 딱해서, “집사님, 이제 남편을 천국에 보내드립니다.”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펄쩍 뛴다. “목사님, 난 남편 없이 못 삽니다. 저렇게 누워 있는 남편이지만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아는 재력가들은 많은 돈 때문에 자식끼리 원수가 되어 늘 싸운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성경은 말씀하신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21:9).

‘사철에 불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것이 참 행복이다.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작년 대구 엑스코집회를 배설했던 대구 예수중심교회 한송이 목사님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저는 30여 년 전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던 그 순간의 충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픈 열망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매년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집회를 여는 이유입니다.”

이번 전주실내체육관 집회를 연 전주예수중심교회 박정직 목사님도 이렇게 말

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기꺼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정신, 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며 지구촌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흠어지면 전도했다. 목사님은 21세기 교회가 사는 길은 1세기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신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

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계신다. 세계교구를 꿈꾸며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특별한 좌표를 찍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자기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지만, 우리는 죽어 오직 예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로 죽을 것인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어라 말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사는



전주집회가 열린 전주실내체육관 전경

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큼니다. 항상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함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작년 대구 엑스코집회를 보고 저의 오랜 꿈을 실행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총회장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고, 또한 남은 생애 꼭 남기고 싶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구령(救靈)의 열정!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극명히 밝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인류 구원의 열정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

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며 교회가 더욱 왕성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목사님은 목회 초기부터 부흥사로 전국을 메주 뛴듯 누비며 체육관, 운동장, 시민회관들을 빌려 복음을 전하셨다. 잠실학생체육관의 금요철야집회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한 영혼 구원의 산실이었고, 1992년 6월 7일 메인스타디움집회는 그 정점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단 시비와 휴거 사건 이후 침체기에 접어든 한국교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세계로 보내셨다. 새천년 이후 지금까지도 목사님은 매년 세계를 다니시며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시대 목사님은 주일에배를 통해 교회 본연의 사명은 ‘예배와 선교’라고 강조하셨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다.

죽음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법이다.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히9:27). 제아무리 부와 명성을 가졌던 자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산자의 특권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베네수엘라 목회자세미나 및 집회

7월 2일(화)~12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겔33:1~11)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제게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겔33:7). 아직 주의 종이 되기 전이었고, 성경적 지식도 없었을 때라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셨고, 파수꾼, 곧 전도자로 세웠음을요. 하긴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불러 곳을 할 때 무당이 아직 세상에 있던 저에게 ‘이거 목사네!’라고 했던 것을 보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짜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파수꾼이 됩니까? 적군의 침입이나 움직임이 감지되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경계를 서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산짐승이 많을 때 밤이면 마을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과수원에서 경계를 서곤 했습니다. 산짐승이 나타나면 팽과리를 치거나 북을 쳐서 쫓거나 마을 사람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잠들어버리면 산짐승이 다 먹어치워 다 된 농사가 망하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기에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백아더 장군이,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수치스러운 저의 군 현역시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초를 서는 날이었는데, 그날 너무 훈련이 고되었는지 보초를 서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지 됩니까? 그런데 하필 그날 상관이 조용히 시찰을 나온 겁니다. 자는 게 딱 걸렸지요. 그때 상관이 “너 때문에 우리 부대는 전멸했다.” 하면서 때리는데 정말이지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날이 흐리면 요즘도 다리가 저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군이 나타났는데 파수꾼이 졸아 나팔을 불지 못하면 다 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우리 모두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8~9). 우리의 주적인 마귀가 주변을 서성이며 틈만 나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

다. 그래서 파수꾼은 늘 깨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 얻을 이름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 그들의 죄 값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경계로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나팔을 울리는 일에

우를 볼 것입니다. 음에도 백성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중요 시설이나 개인 집에도 경비보안업체와 계약하여 안전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도적이 들 때 비상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이 들었는데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모든 손해배상은 경비보안업체의 몫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전원을 꺼버려 도적이 들었을 때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주인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건져내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자입니다. 후진하는 자동차 뒤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면 달려들어 건져내야 옳습니다. 세상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 람이 아닙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 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

찌 알지 못하시겠느냐”(잠24:11~12). 나팔을 불어야 듣고 경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식장, 장례식장, 심지어 목욕탕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4). 그런데 교회가 혼적인 것에 주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시대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요? 굳이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굳이 힘이 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편한데 굳이 일을 만들 게 없애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는 이렇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도 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사56:10~12).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지옥으로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나팔을 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히 9:27)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으로, 안 믿은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됨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차치하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지 성경은 이렇게 극한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 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막9:47~49).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네 눈을 빼고, 네 손을 찢어버리고라도 지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선에 소금을 치면 생선이 팔짝팔짝 뛰지요? 그걸 바로 불 위에 올려놓아 보세요. 죽기 전까지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고통이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바닥이 닿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는 곳,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절대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죽은 부자도 자기 가족들은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를 전한 이유가 지옥만은 피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나사로처럼 강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피해야 합니다. 전도는 사명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대가를 철저히 치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저렇게 악한 자는 절대 천국 가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겔33:11)고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막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딤후4:2). 늘 깨어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되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찌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사52:7~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찬양과 경배 ::

이겨야 한다

해마다 연말 결산 영상을 제작한 지 24년이다. 2000년 말부터 시행해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매년 해온 작업이다. 준비 단계부터 완성, 그리고 결재까지 대략 1~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10월이 되면 부담이 시작된다. 때로 일이 잘 풀려서 대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멘트 녹음, 오프닝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 및 BGM 선정 등이 순조로우면 다행이지만, 해외집회 일정 등에 밀려 시간에 쫓기거나 편집 단계마다 벽에 툅 걸리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어서 빨리 연말이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한다. 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말 기분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다. 어쨌든 그러저러한 진통 끝에 완성을 하고 목사님의 결재가 끝나면, 긴 진통 끝에 아이를 낳은 산모의 훌거분함이 이럴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다 지난해 말 주일에 결산 영상 상영을 마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시간은 가는구나. 그러나 절대 건너뛰는 법은 없네. 어차피 그 시간을 오롯이 내가 다 겪어야 하는구나!’ 누가 군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했는데, 좀 있으니 벌써 제대를 앞뒀다는 소식을 들으면 ‘시간 참 빠르네.’ 하면서도 내가 겪은 군대 시절을 상기해본다. 무려 3년 6개월을 지냈다. 그 하루하루가 건너뛰는 법 없이 내가 다 몸으로 부대끼고 나서야 끝났다. 남이 아닌 내가 사는 인생이기에 영화처럼 건너뛸 수도 없고, 누가 대신

경험해주지도 않는다. 오롯이 내가 다 견뎌내야 한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100여 년의 세월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세월도, 모세의 출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여정도, 가나안 정복과 이후 사사 시절, 사울과 다윗왕을 비롯한 열왕들의 이야기, 또한 마지막 멸망하기까지 그 엄청난 역사적 장면들도 우리가 글로 보고 있기에 몇 페이지, 몇 줄로 기록되어있을 뿐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 각자는 절대 건너뛰는 법 없는 삶을 하루하루 오롯이 견뎌내며, 싸우며, 때로는 벅찬 승리를, 때로는 엄청난 실패를 겪어야 했다. 그 삶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매한가지다. 내가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든, 허비하든 절대 건너뛸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그 시간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이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피하려 하지 말자. 피할 수도 없다. 내가 싸워 이겨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만이 삶의 주인이 된다. 천국도, 상급도 마찬가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21:6~7).

Henry Han

어린이와 같은 믿음

중고등부에서 봄 수련회를 했습니다. 봄 수련회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있었는데, 그중 학생들에게 나눠줄 신앙서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접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아는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같이 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종이를 접던 어느 선생님이, “대한아~ 지금 종이 한 장 접을 때마다 천국에 있는 대한이 집에 금벽돌이 한 장씩 쌓이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종이만 접었습니다.

제가 제 할 일을 마치고 나서 종이 접는 일을 도울까 해서 대한이한테 가서, “대한아, 삼촌이랑 같이 하자.” 이랬더니, 이 친구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 안돼!” 하더니 종이를 다 숨기더군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대한이는 선생님이 ‘종이 한 장 접을 때

마다 천국에 금벽돌이 쌓인다’는 말을 믿은 것입니다. 대한이가 저한테 보인 반응은 그 종이를 한 장 뺏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벽돌 한 장을 뺏기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자기 집에 벽돌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귀여운 한편, ‘이게 어린이의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마18:1~3).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이뤄질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히11:1).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제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제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윤예녹 생도

:: 성경에세이 ::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

여보게!

밤새 안녕이라고 내일 만나기로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네. 정말 내일이란 우리 것이 아님을 깨닫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라네.

우리 집에 분재가 있는데 내가 그걸 해외 집회 다녀와서나 물을 줘야지 하고 보름 후에 와보니 죽어있지 뭐냐. 그때 살피고 물을 줬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일 하지~’ 하다가 그런 꼴이 난 거라네. 어디 그뿐인가? 병원 심방 갈 일이 있었는데 ‘오늘 바쁘니까 내일 가지.’ 했는데, 밤새 그만 유명을 달리해버렸네. 정말 마음이 괴로웠네. 그러나 그것은 내게 큰 교훈이 되었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여보게!

오늘만이 현금이라네. 어제가 부도난 수표라면 내일은 약속어음이지. 부도난 수표나 약속어음은 힘이 없지. 현금만이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라네.

‘내일 효도하지’ 하면 평생 못한다네. ‘내일 공부하지’ 하는 놈치고 공부 잘하는 놈 못 봤네. ‘내일 청소해야지’ 하는 사람의 집은 엉망이야. ‘내일 자수하지.’ 하다가 오늘 체

포되면 범법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

나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지. 그런데 내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지나간 것에 대해 후회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에 충실하다는 것이지. 그들이라고 왜 후회가 없겠는가마는 그들이 다른 것은 강을 건넌으면 뗏목을 버린다는 각오로 오늘에 충실하더라는 거지. 오늘에 충실하면 내일은 자연적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거든.

오늘이 쌓여 평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 ‘오늘만이라도 기도하리라’ 하면 평생 기도하게 되고, ‘오늘만이라도 영어 공부하리라’ 하는 자는 영어에 능숙하게 되고, ‘오늘만이라도 정직하리라’ 하면 남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되고, ‘오늘만이라도 거룩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오늘’이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 오늘 최선을 다하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야!

朋友

이 땅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 땅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교사가 되어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된 지금까지 외치는 구호이다.

한번은 어느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내게 건넸다.

“목사님, 구호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몇 년째 100여 명 안팎으로 모이는 부서에서 외치는 구호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심지어 잔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구호는 동일하다.

2006년, 기도원에서 호텔 지하 세미나실에서 동계수련회를 진행할 때, 한 교사가 강사로 오신 이시대 목사님께 질문을 하였다.

“목사님, 부흥의 때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도 좀처럼 활로가 열리지 않는 청소년 사역에 지친 한 교사가 용기를 내서 던진 질문이었다. 그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부흥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목사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니깐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느냐? 그건 참 인내가 아니다. 진짜 인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올 것을 분명히 믿고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다. 그 저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하는 사람은 그 파도를 구경만 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해주신 이시대 목사님 말씀이 모범 답안이 되어 그 뒤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일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도 봄 수련회, 체육대회, 바비큐 페스티벌 등등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어간다며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고 있다. 하나님의 때에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것을. 그때 그 파도를 타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생각에 오늘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현승 목사

:: 주님을 향하여 ::

:: 신앙에세이 ::

계란으로 바위 치는 사람들

짐 엘리엇과 네 명의 친구들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아우카족의 창과 도끼에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만다.

그들의 죽음은 ‘루크’라는 잡지에 실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까운 생명만 잃었노라며 그들의 무모한 선교 활동을 비난한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고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1년 후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간다. 그리고 5년 동안 아우카족과 살면서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 헌신한다. 그런 그녀에게 감동한 아우카족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녀의 남편 엘리엇을 살해한 청년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된다.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살해당한 남편을 대신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녀의 무모한 결단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꼴이라며 하나같이 말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남편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처럼 무모하리만치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은 많다.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는 목사도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떠나면 땅에 묻으며 이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선교사들도 있다. 이 땅을 위해 피 흘린 그 수많은 죽음이 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들의 그 무모함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다. 불가능하면 할수록, 무모해 보이면 보일수록 그들은 더욱 힘을 얻는다. 거

대한 바위에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지라도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런 무모함 속에서 더욱 빛난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무모함에 가까운 순종 때문이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들’이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은 사람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무모한 일들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리라. 70이 넘으신 나이에 도 하루가 멀다고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사랑과 존경을 전하고 싶다.

박영임 생도
jjamballqueen@naver.com

상처받은 이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하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올바른 질서와 기준을 정해주셨다. 또한 자녀가 행하기에 마땅한 이 말씀을 하나의 큰 축복의 통로로 사람에게 주셨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종종 뉴스를 보면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 같지도 않은 악한 자들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가 있다. 안타깝고 화가나 눈물이 날 때도 있다. 지난 어버이날 주간 예배 설교에서도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성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목사님마저도 할 말을 잃게 만든 학대로, 그들에게 어버이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픈 일 같았다.

나는 목자가 아니기에 해줄 수 있는 말, 같은 양으로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 부모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다른 축복의 통로를 찾으면 된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픈 과거를 다 아신다고. 괴로운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음했던 당신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신다고. 그러니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너무 자신을 괴롭게 하며 아파하지 말라고.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49:15).

박찬영 집사
cross35@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랑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

:: 프롬 인터넷 ::

현대판 고려장

한 소년이 할머니 때문에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어머님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요.”

엄마의 쉿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오. 당신이 참아야지.” 하는 아버지의 궁색하신 말씀도 이제는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가 묵으실 방 하나를 따로 얻어서 내보내드리는 것이 어때요?”

엄마의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불효자라고 모두들 흉볼 텐데...”

“아니, 남의 흉이 문제예요! 우선 집안이 편해야지.”

며칠 후 할머니 혼자 이사하시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어린 소년은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너 뭘 그렇게 적고 있니?”

엄마는 아들이 적고 있는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냄비 하나, 전기담요 하나, 전기밥솥 하나, 현 옷장...’

소년의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습니다.

“너 그런 것을 왜 적고 있니? 하라는 공부

는 안 하고?”

소년은 엄마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다음 엄마가 늙으시면 혼자 내보낼 때 챙겨드릴 이삿짐 품목을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어린 아들의 이 놀라운 기지에 엄마는 그만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의 이삿짐을 도로 풀어놓고, 그날부터 할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3).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는?

혈압이 높게 되면 흥분을 잘하고 어지럽고 피곤하며 불면증이 오기도 하는데, 증상이 없이 혈압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야간빈뇨나 부종이 오며, 50%는 관상동맥병, 33%는 뇌졸중, 10~15%는 신부전으로 사망하기에 고혈압의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에는 체중조절, 금연, 규칙적인 운동, 명상, 당분 및 소금 제한, 술이나 커피를 절제하며 과로나 스트레스도 줄여야 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식품으로는 감귤질이나 무즙이 좋은데, 감귤질에는 비

타민 C와 혈압강하에 도움이 되는 루틴이 들어있습니다. 무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므로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약제로는 첫 번째로는 조구등이 있는데, 혈압강하 작용이 강력합니다. 경증은 10g, 중증은 20g 이상을 끓여서 차로 마시는데, 10분 이상 끓이면 효과가 떨어지니 10분 이내로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 중 어지럽고 머리와 눈이 아플 때 국화와 하고초를 끓여 먹으면 머리를 맑게 하고 해열시키며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어깨가 많이 뭉친 고혈압의 경우에는 찜자가 도움이 되며, 회침이라고 불리는 진득찰을 꿀물과 술로 여러 번 찌는 다음 끓여 마시는 것도 혈관을 회복시켜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내과에서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혈압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의 내용으로 몸을 관리한다면 고혈압을 미리 예방하고 고혈압으로 인한 이차적인 후유증을 예방하여 주님이 주신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저녁노을 황혼에 미소진 그 모습
주님을 불러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망치 소리 핏방울
젖전에 올리면서 내 맘에 파고드네
온 인류의 속죄의 보혈
아! 속죄의 보혈
영원한 구원의 약속
오늘도 전하리라

-봉우

